

일본노동조합총동맹의 교육활동지침

노 광 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이 글은 전일본노동조합총동맹(全日本労働組合総同盟, 이하 동맹)의 교육활동지침이다. 일본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은 총맹, 동맹, 산별, 중립노련 등 4개로 나누어져 있다가 1989년 연합으로 통합되었는데, 동맹은 연합 결성의 모체였다. 물론 통합을 '우익적 재편'으로 규정하고 참여를 거부한 몇 개의 조직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동맹의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동맹이 추구하는 운동 노선이 노사협조적이고 우익적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조직 재편을 주도하였고, 일본노동운동의 주류를 점한 연합(連合, 령고)의 토대가 동맹 시절의 활발한 교육활동이었다는 것은 일본노동운동이 주는 하나의 역사적 교훈이라 생각된다. 실제 동맹의 교육활동은 체계적이고 계통적으로 풍부하게 진행된 반면 계급적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총맹은 노동교육에 관한 방침과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기업별 노조의 극복과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적 통합을 꾀하려는 우리에게 일본의 경험이 반면선생(反面先生)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우리와 같이 기업별노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노동교육의 이념과 방향에 관한 중앙조직의 방침과 교육 체계화를 위한 중앙조직, 산별연맹, 단위노조의 역할이 세부적으로 제시돼 있다.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노동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용을 전제한다. 이 글은 동맹에서 발간한 동맹기본시리즈 No. 6 (1981) "교육활동지침"을 번역한 것이다.

제 1 부 교육활동의 이념과 목표

1. 교육활동의 목적

(1) 기본 목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목적은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노동자의 생활 향상과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지향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각종의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활동은 그 밑바탕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운동 이념은 현장과 운동 방침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로 민주적 노조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동은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자주적인 참가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기에, 그 이념이 조직의 밑으로까지 확산되지 않고서는 운동의 정착 혹은 발전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활동의 기본 목적은 민주적 노동운동의 정착·발전, 달리 말하면 민주적 노동운동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실천 목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교육활동은 위와 같은 기본 목적에 따라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전개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실천 목적을 제기한다. “조직의 강화 발전 그리고 풍부한 인간애를 갖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에 긴밀히 연관되고 교육활동 추진의 준거점이 되는 것이다.

조직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민주적 노동운동의 이념을 지향하는 우리의 교육활동은 우선 첫째로 조직의 강화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은 조직에 결집하는 힘에 의해, 이념의 실현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조합원이 신뢰를 바탕으로 단결을 꾀하고 확고한 조직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같은 강고한 단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주적인 참여의식이 고양(高揚)되어야만 한다. 참여를 촉진하고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출발점은 노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의(合意)에 있다. 이것을 끌어내고 고착시키고 발전시키는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교육활동인 것이다. 조직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은 연수활동·출판활동·문화활동·정책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일상활동 전체가 실제로는 교육활동 그 자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집행부의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라면 교육활동은 그 위치보다 높은 단계로 향상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만다. 또 임원 자신이 학습하는 자세없이 조합원에게 학습모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임원, 활동가는 물론 선수범해서 조합원과 함께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상적으로 끊이지 않는 운동이야말로 교육활동의 목표이고 이것이 조직의 강화·발전의 출발점이다.

풍부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운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의 강화·발전을 교육활동의 제1과제로 추구한다. 그렇지만 민주적 노동운동의 이념을 진실로 실현하려면 조직의 강화·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교육활동의 제2과제로서 풍부한 인간애를 갖는 사람을 양성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사람 한사람의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것은 정치와 제도의 개혁, 생활의 향상만이 아니다. 인간다움이 정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한, 그것은 물질적인 만족과 함께 마음의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 형성을 위한 교육활동은 우선 조직 내의 교육에 있어 그 관점부터 옳게 정립되어야 한다.

직장의 교육활동과 수련회 등에 있어, 리더십 훈련, 문화활동과의 제휴, 1대1(man-to-man) 교육의 강화 등 다양한 결합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일상의 조직활동, 중간층과의 결합, 선배후배와의 인간관계 등은 특히 중요하다. 또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활동은 오늘날의 과제로서 평생교육과 깊이 결합되어 있다. 사회 전체의 교육과 평생교육의 방법과 무관하게 노동자교육의 진전은 얻어 질 수 없다.

예전대 신입조합원은 긴 기간에 걸친 학교교육을 마치고 조합에 들어오게 된다. 또 조합원은 퇴직 후에도 스스로의 향상을 위해 교육기회를 찾게 되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평생교육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나라의 노동자교육 전체가 평생교육의 흐름 가운데 적절하게 위치 지워져야 하며 자기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예전과 달리, 노동운동 지도자의 매력은 그 운동에의 정열과 자세와 함께 풍부한 인간적 매력과 높은 인간성에 있다. 격동의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 우리는 다양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면서, 개성과 매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민주적 노동운동에 있어 교육활동의 기능은 ① 조직을 강화·발전시키는 기능 ② 풍요로운 인간을 양성하는 기능 이 두 가지에 있다. 더욱이 이 두 기능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서 통하는 것이며 상호보완되는 것이다. 뛰어난 조직은 훌륭한 노동자의 단결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고, 훌륭한 노동자는 뛰어난 조직의 활동에 의해 철과 같이 강건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2. 교육활동의 특징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교육활동은 조직의 강화 발전을 위해 그리고 풍부한 인간 형성을 위해 늘 폭넓고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직장의 대화활동, 수련회, 교재의 제작, 평생 교육에의 결합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활동의 축적에 따라서 교육활동은 수행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다. 그것은 주체성과 실천성이고, 이것들은 민주적 노동운동에 있어 교육활동 추진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1) 활동의 주체성

노동조합의 교육활동은 자기 스스로의 주체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활동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주적으로 조직되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수활동과 교재 제작에 있어 외부에 적절한 조언과 협력을 구할 경우에도 교육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정신은 교육의 기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 더욱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선택한다는 태도를 늘 간직해야 한다. 또 평생교육·사회교육의 제언 등의 활동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정책을 높이고 그것에 기초하여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2) 실천과 결합한 교육

우리의 교육활동은 운동체의 활동으로서 실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련회 활동에 대해서도 내용은 이론적인 것, 문화적인 것, 실무적인 것으로 폭이 넓어지는데 늘 실천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러한 것은 교재의 제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정책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연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실천과 결합하여야 한다. 또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성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실천활동으로부터 교재를 만들고, 실천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다. 교재 속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 또 실천을 통해 배워야 할 것도 많다. 즉, 실천하면서 배우고 학습과 함께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러한 실천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양자를 마찰 없이 결합시키는 자세이다. 우리의 교육활동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상호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활동은 이상과 같은 두 가지를 원칙으로 하여 그 목적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조직체제의 확립이 전제가 된다. 조직 전체에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교육활동의 추진은 가능하지 않다. 또 이같은 조직 체제는 재정상의 충분한 배려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활동에 최대한의 투자를 행하는 자세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하다.

3. 교육활동의 영역

(1) 활동의 3영역

우리의 교육활동은 앞에서 서술했던 이념과 특질을 갖고 진행된다. 그 내용은 노동운동의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것이고 그 방법과 형식은, 직장의 대화 학습으로부터 대규모의 집회까지 실로 다양하다. 원래 일상활동 모든 것이 교육활동이라고 말해지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대상으로 된다.

이같이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우리의 교육활동을 그 활동 영역의 측

면에서 다음의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① 교재, 통신교육에 의한 자주학습 ② 직장에서 대화교육 등에 의한 개별교육 ③ 수련회, 집회 등에 있어 집합교육의 3가지이다.

자주학습

우리의 교육활동 가운데 자주학습은 교육의 가장 기초로 되는 것이다. 대화활동과 교육활동을 강화하더라도 한사람 한사람의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학습하는 의욕을 갖지 않는다면 교육 효과는 지속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학습풍토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임원으로부터 일반 조합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체가 스스로 학습하는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교육활동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리고 자주학습의 추진을 위해서는 교재가 대단히 중요하다.

교재의 종류로서는 출판물, 시청각 교재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상급단체와 각종의 교육기관이 만든 것 가운데 자주학습에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함과 동시에, 각급 기관에서 스스로 제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교재를 작성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항상 조합원의 자주학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주학습의 전제는 학습에의 의욕이다. 의욕은 동기가 필요하다. 자주학습의 분위기를 만들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집행부의 뛰어난 지도력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개별교육

개별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직장을 중심으로한 활동가와 조합원의 대화활동이다. 이 활동은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상호에 접촉하는 교육활동으로서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것은 조합원이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이해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명확해진다. 즉, 조합원은 활동가와 집행부를 통해서 조합조직과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활동가의 진솔한 자세와 생활태도, 인간성 더욱이 집행부의 운동에 대한 열의와

성과야말로 살아 있는 교재이다.

그러나 이 개별교육은 집행부원과 활동가에 개인적으로 맡겨져서는 안된다. 조직적으로 진행될 때라야 의의가 있고 또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집합교육

집합교육의 중심은 수련회다. 수련회는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노동학교로부터 토론집회, 통신교육까지 다양한 형태로 폭 넓게 진행된다.

수련회는 많은 조합원이 동시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적절한 선택과 운영에 의해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련회를 진행할 때는 조직적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을 설정하는 것과 함께 의욕있고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전문위원, 교육가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수련회의 개최는 조직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충분한 체계와 실정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 또 조합원이 일회적이지 아니라 계속 참여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용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더욱이 참가자를 조직 내에서 어떻게 위치 지울 것인가라는 하는 계획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 연수활동은 교육활동 전체의 핵심으로 중요성을 띠는 것이다.

(2) 기관지와 교육활동

기관지는 교육활동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기관지는 “종이(紙)의 조직”이라고 말할 정도로 직장의 조합원에게 침투하고 교육활동의 성과도 이러한 지면을 통해 전체 조합원에 널리 퍼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이와 함께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불러 일으켜 운동에 반영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기관지는 일반 매스컴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이념

과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즉, 뛰어난 교육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기관지 활동과 교육활동은 차의 두 바퀴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서 생각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3) 문화활동과 교육활동

문화활동은 조합원의 풍부한 인간 형성이라는 점에서 큰 힘을 갖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활동의 한 부분이다. 문화에 대한 요구는 노동자의 인간적인 향상을 위한 의욕이고 그것은 우리의 교육활동의 이념과 일치한다. 자연활동 속에서의 활발한 움직임(躍動), 스포츠에서의 기쁨, 예술에 대한 감동이라든가 인간성 향상을 위해 가지는 역할은 대단히 많다. 구체적인 활동으로서는 문화제, 체육행사, 문화활동의 연수활동, 서클활동 등이 있다. 우리는 이같은 활동을 촉진하면서 교육활동과 효과적으로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의 시대에 우리는 교육활동 안에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것은 문화활동을 인간교육, 평생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옹기 파악하고 위치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4) 평생교육과 노동조합

평생교육에의 자세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적절하고 풍부한 학습의 기회를 찾고 있다. 평생교육은 이것에 부응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학습을 진행한다는 원리이며 실천활동이다. 이같은 생각에서 볼 때 오늘날 추진되는 평생교육은 노동조합의 교육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같은 평생교육을 우리의 이념과 비추어 볼 때 그것을 올바르게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 교육의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자가 단순히 고도공업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서 평생교육을 전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풍부한 인간형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평생교육의 확립을, 교육활동의 새로운 관점으로 세우고 여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의 과제

이상과 같이 노동조합에 있어 평생교육은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노동자의 입장에 선 적절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의 교육과 사회전체의 교육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다. 평생교육과의 연관에서 ILO 140호 조약·유급교육휴가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방법과 제도를 확립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 평생교육 안에 커다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오늘날 조합원을 양성하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교육활동은 교육기본법이라는 사회교육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제7조에는 “노동하는 장소에 있어 교육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장려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평생교육에 대응하면서 이처럼 법률에 보장된 권리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체의 교육기관, 대학전문학교를 비롯한 학교교육과의 제휴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상의 과제는 평생교육에 따른 문제의 한 예이고, 각급 조직이 각각의 입장에서 진실한 대응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교육활동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평생교육에 있어 노동자의 삶이 풍부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부 교육활동의 체계와 기준

1. 교육활동의 체계

(1) 체계화의 의의

제1부에서 우리는 민주적 노동조합의 교육활동의 이념과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민주적 노동조합의 뿌리에 공통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활동의 형태와 내용은 각급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통의 기본 이념을 가진 운동체이고 그 진전을 위해서는 교육활동에 있어 원칙적인 체계와 일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또 오늘날 민주적 노동운동의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실천에 따른 체계와 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조직 단계를 일관하는 원칙적인 체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조직단계와 교육활동

동맹-중앙조직

◦ 교육활동에 있어 중앙조직으로 동맹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교육활동은 중앙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동맹 교육활동의 주요 방향으로 각종 활동을 조직함과 함께 산하 조직의 교육센터로서 역할도 담당하여야 한다.

◦ 방침·표준의 확립 - 동맹 전체의 교육활동 방향성을 제시하고, 적절한 방침을 확립한다. 그리고 평생교육 등 사회 전체의 교육에 관해서도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부터 적절한 연관성을 확보한다.

- 교육 전망(vision)의 수립 - 강사단의 멤버 등 학식 경험자와의 제휴를 긴밀히 하고 시기에 맞춰 적절한 교육 전망(vision)을 수립한다.

특히, 문제가 얽혀 있는 학교교육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교육 노동자와의 긴밀한 제휴아래 적절한 전망을 찾고 학교의 보다 나은 방향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 교육활동의 개발 -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내용을 개발한다. 특히 연수에 있어서 새로운 기획의 수립, 교육 기법의 개발 연구, 새로운 교육 기재의 작성, 교육 기기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전국단위의 연수활동 - 전국적인 시야를 갖는 연수활동을 조직한다. 산업별 조직, 지방동맹의 일꾼 교육은 동맹의 역할이다. 더욱이, 동맹에서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가의 양성을 수행한다.

- 학습교재의 제작 - 전국적 시야에서 학습교재를 만든다. 이것은 구성 조직에 있어서도 수행되지만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는 중앙조직이 나누어서 말아야 한다. 교재로서는 교과서(text), 팜플렛과 같은 출판물, 슬라이드, 영화, VTR과 같은 시청각 교재가 있지만 각종의 교재를 다각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교육활동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열의 있고 유능한 교육담당자의 양성에 힘을 기우려야 한다.

- 산하조직과의 협력 - 산하조직과 교육활동에 적절한 협력을 수행한다. 연수에 따른 협력, 정보·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력을 수행한다.

- 지방동맹과의 협력 - 지방·지구동맹에 대하여 유효하고 적극적인 지원협력을 수행한다. 또 동맹이 주최하는 집합교육은 주로 지방동맹의

활동가 양성을 담당하는 것이다.

- 외부 교육기관과의 협력 - 민주적 노동자교육을 추진하는 제 단체 등 우호적인 노동자교육단체와의 제휴를 강화한다. 또,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적극적인 제휴, 협력을 추진한다.

- 국제연대활동 - ICFTU(국제자유노련)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세계의 노동운동과 교육활동을 통해 연대를 꾀한다. 특히, ARO(ICFTU 아시아지역조직)에 결집해 있는 아시아의 노동운동에 대하여 연대와 지원을 꾀한다.

산업별 조직

산업별조직에서는 산하 조직의 요청에 따른 교육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해당산업의 고유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별 조직의 교육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방침을 확립한다 - 교육활동에 대하여, 산업별조직의 실정에 맞는 방침을 확립한다. 또, 기업교육을 비롯한 산업에 있어 교육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갖는다.

- 산별 단위의 연수활동 - 산업별 단위에서 연수활동을 조직한다. 산별 토대의 활동가는 원래, 산하조직의 임원, 활동가를 위한 연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더욱이 각 전문담당자를 위한 연수활동을 조직한다.

- 학습교재의 제작 - 산업별 조직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교재를 작성한다. 출판물과 함께 슬라이드·영화·VTR 등 시청각 교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산하 단위노조에의 지원·협력 - 산하 단위노조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 협력을 행한다.

단위조합

단위노조의 교육활동은 그것이 노동운동의 뿌리인 직장에 직접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조직의 규모, 형태의 차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역할의 중점을 다음과 같은 것에 둔다.

- 단위노조 단위의 연수활동 - 신입조합원, 일반조합원, 직장활동가 등의 활동단계별에 따른 연수 혹은 청년층, 부인층, 중고연령층 등의 층별(層別), 조직실태에 따른 세부적인 연수활동을 조직한다.

- 교육활동의 정비 - 단위노동조합에 있어 자주학습의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조합원에게 가장 충실한 교육환경이다. 임원이 앞장서서 학습하는 자세를 높이는 활동을 전개한다.

- 대화활동의 추진 - 대화에 의한 개별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활동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정신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조직원의 확대와 간부 양성을 꾀한다.

지방·지구동맹

민주적 노동조합의 지역에 있어 연대활동의 기초는 지방·지구동맹이다. 지역의 노동운동을 추진하고 동맹의 지역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지구동맹의 교육활동의 역할은 중요하다.

- 지역 단위의 연수활동 - 지방동맹은 지역에 있어서 연대활동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양성을 꾀한다. 특히, 지구동맹 단위의 활동가 양성은 지방동맹의 중요한 역할이다.

또 국민운동, 정치활동 등은 특히 연대활동의 성격이 강하다. 이 운동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적극적인 양성을 꾀한다. 더욱이, 지방동맹 청년부의 활동가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젊은 활동가가 노동자 연대를 통해 운동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동맹의 지역활동의 전진에 있어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의미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 교육환경의 정비 -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재를 만든다. 또 교육담당자의 양성에 노력한다. 더욱이 필요에 따라서 지역의 평생교육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체에 요구를 제기한다.

◦ 산하조직의 교육활동과의 협력 - 지역의 단위노동조합, 지부의 교육활동에 대한 적절한 협력을 행한다. 지방 동맹은, 지구동맹의 교육활동에의 지원 협력을 행한다.

2. 교육내용의 기준

(1) 기준의 의의와 역할

우리의 교육활동은 이제까지 서술했던 것처럼 실제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그것은 조합원이 절실한 관심을 갖는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비하고 우리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 내용을 선택하고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조직실태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교육활동 전반에 공통적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교육대상에 의한 구분이 가능하다. 그것은 ① 임원 및 집행부 ② 직장활동가 ③ 일반조합원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는 연령별·남녀별·직종별·전문담당별…… 등의 직장의 지극히 세부화된 구분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3가지 구분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활동단계별 내용기준

임원집행부

임원과 집행부에 대한 교육내용 중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민주적 노동운동을 자기 스스로의 것으로 하는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과 함께 지도자로서 필요한 지식을 몸에 체득하는 것이다.

최고의 책임과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처지에 있는 임원과 집행부가 민주적 노동운동에의 의욕을 결여하고 사회의 진보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운동의 일익(一翼)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각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운동의 미래는 없다.

또 먼저 배움을 마친 임원과 집행부는 늘 폭넓은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넓은 시야를 갖고 배워야 한다. 특히 노동운동을 둘러싼 제반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 산별, 지방·지구동맹의 지역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더욱이 조직 조건이 다른 타 조직과의 교류를 통해 광범위하게 배워야 한다. 예컨대 다양한 조직경험을 가진 임원이 상호에 교류하는 것은 각각 큰 의의가 있다. 또 임원과 집행부내에서는 적극적인 상호 학습이 필요하다. 직장의 사례를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하고 년간의 연구과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는 등 집행부 상호간의 학습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에 의해 그 지도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부 상호간의 학습은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 풍토를 확립하는 것에 의해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자주적인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의 문제점으로서 내부의 강사체제의 미확립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상호에 학습하는 것에 의해 학습풍토가 정착된다면 그 가운데 강사와 조연자(전문가)가 양성되고 더욱이 조직적, 전문적인 활용체제가 확립되는 것이다.

직장활동가

직장위원과 대의원 등 직장활동가는 노동조합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조합원과 함께 움직이고,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조합원과 접촉하는 직장활동가가 조합원에 충분히 신뢰받지 않는다면 집행부와 현장의 의사소통도 나쁘게 되고 일상활동도 정체되고 노동조합은 밑으로부터 붕괴되고 만다.

직장활동가에 대한 교육 내용은 노동조합의 모든 실무를 충분히 훈련하여 숙련하는 것, 신뢰받는 인간애를 쌓아 가는 것이 최대의 역점이 되어야 한다. 직장 집회를 여는 방법, 말하는 방법, 보고서를 쓰는 방법, 고충처리의 방법 등 조합의 모든 실무는 구체적 또 착실한 실천으로 쌓아 가는 것이 기본이다. 또 인간성 향상에 대해서는 각종의 연수 등이 유효하지만 실천이야말로 가장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직장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폭을 넓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활동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귀중한 것이고, 인간애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일반조합원

조합원이 직장에서 노동운동을 배우는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①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와 실천을 통해서 ② 조합의 여러 가지 활동에의 참가에 의해 ③ 조합의 활동가와 임원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다.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이 경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연수회의 개최 시기도 임투와 선거, 그 밖의 활동을 스스로 느끼는 때가 효과적이다.

또 대화활동을 중심으로 한 실천활동이 효과가 높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상의 직장집회, 대화집회, 직장간담회 등은 아주 좋은 교육활동의 기회인 것이다. 역시 조합원 교육에서 가장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신입조합원교육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조합에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 조합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규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신입

조합원교육은 노동조합 교육활동의 시작으로 중요하다. 이 교육을 받은 조합원이 이후 조직의 강화 발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은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활동이 쌓여 감에 따라 우리의 교육활동은 보다 좋은 성과가 전망되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활동은 이상과 같은 체계와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전개에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체계와 기준에 표시되었던 각각의 기능과 역할의 유기적인 결합이다. 체계 및 기준은 동맹, 산별조직, 지방·지구동맹, 단위노조 혹은 임원, 활동가, 조합원이라는 처지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전개에 있어서는 그 각각이 내용과 운동의 양면에 있어서 밀접한 제휴를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교육활동의 진정한 전진을 실현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교육**